

만남

2015 8월
통권 127호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님 :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신부님 칼럼	내 안에 있는 하느님 나라(天國) (루가 17,20-25) _____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재산과 자만(집회 5,1-8) _____	4
주임신부님 교리	교리 108~110 -----	7
나눔 글	_____	13
가정 교회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 _____	14
찬 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_____	15
공동체 소식	_____	16
지방 공동체 소식	_____	20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_____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_____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_____	23
미사안내	_____	24

《교황님의 8월 기도지향》

❖ 일반 지향 -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들이 궁핍한 이들을 위한 봉사에 기꺼이 헌신하도록 기도
합시다.

❖ 선교 지향 -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기

우리가 자신을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의 이웃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2015년 8월 칼럼글

내 안에 있는 하느님 나라(天國) (루가 17,20-25)

하느님 나라(天國)를 장소(場所) 개념으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느님 나라는 장소(場所)가 아닙니다.

하느님 안에서 누리는 삶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가는 곳’ 혹은 ‘가야 할 곳’ 이 아닙니다.

‘누리는 것’ 또는 ‘누려야 할 것’ 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밭에 뿌려진 겨자씨처럼(마태13,31), 밀가루 서 말 반죽 속에 든 누룩처럼(마태13,33) 우리 가운데 이미 와있습니다.

하느님은 아버지(마태오 6,9)입니다.

하느님이 아버지이심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하느님 나라를 누립니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자비로운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며 함께 누리는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기쁨과 환희,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맑고 밝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입니다.(마태5,3.8)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입니다.(마태5,9-10)

하느님 나라는 ‘여기 혹은 저기’ 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이번 달도 하느님 나라를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 재산과 자만(집회 5,1-8)

◆ 저번 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한다.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61장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1절

◆ 주님 초대하기 (화답송)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모든 것 위에 올림을 받으신 주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 저희 자신을 비우고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성령의 이끄심에 의탁하게 도와주소서.

◆ 하느님 말씀 (복음 나눔)

(진행자) 어느 분이 집회서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 재산을 믿지 말고 “넉넉하다.”고 말하지 마라.
- 2 너 자신과 네 힘을 붙좃지 말고 마음의 욕망을 따르지 마라.
- 3 “누가 나를 억누르리오?” 하고 말하지 마라. 주님께서서 기필코 징벌하시리라.
- 4 “죄를 지었어도 내게 아무 일도 없었지 않은가?” 하지 마라.
주님께서서는 분노에 더디시기 때문이다.
- 5 속죄를 과신하지 마라. 죄에 죄를 쌓을 뿐이다.
- 6 “그분의 인자함이 크시니 수많은 내 죄악이 속죄받으리라.”고 말하지 마라.
정녕 자비도 분노도 다 그분께 있고 그분의 진노가 죄인들 위에 머무르리라.

7 주님께 돌아가기를 미루지 말고 하루하루 늦추려 하지 마라.

정녕 주님의 분노가 갑자기 들이닥쳐 너는 징벌의 날에 완전히 망하리라.

8 부정한 재산을 믿지 마라. 정녕 재난의 날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리라.

1.(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2.(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3.(진행자) 마지막으로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나눔)

- 자신을 '자만'에 빠지게 하여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거기에서 빠져 나온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 해 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소공동체장)

오늘 집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루카복음 12장의 수확한 것이 너무 많아 곡간들을 헐어 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어쩌면 오늘날 재물을 모으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사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해 주는 듯합니다.

한글 사전에 자만(自慢)의 뜻은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을 스스로 우쭐거리며 뽐냄'으로 나옵니다. 사람들은 재산이 많아질 경우 대개 자만하고 교만에 빠지며, 가질수록 집착하게 됩니다. 물론 재물을 소유한 정도와 재물에 대한 집착은 별개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사는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신명기 8,11)”고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지난 3월 2일 성베드로 광장에서 한 강론 중에 “소유를 위한 갈망으로 어지러워진 마음은 소유를 위한 갈망으로 가득 찬 마음이며, 그 마음에는 하느님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자주 부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지상의 재물에서 자기들의 안전을 찾는 중대한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안전은 하느님 안에 있습니다. 재물에 사로잡힌 마음에는 신앙이 자리할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재물과 관련되어 있을 뿐, 신앙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누군가 하느님께 합당한 자리를, 그것도 으뜸의 자리를 마련해 드린다면, 그의 사랑은 자신의 부까지도 나누는 사랑으로 발전하고, 그 부를 연대와 발전의 계획에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중략) 누구도 재물을 갖고 그분께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누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다른 이와 나누는 그것만 갖고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것들을 가질 수 있는 '나 자신'이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겸손되이 인정한다면, 우리는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내어 놓아야하겠습니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 자유기도 (진행자) - 영성체 후 : 마음에서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

◆ 사제와의 통교 - 미사 강복 후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61장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교리108

성숙한 신앙(5)

율법주의의 잔재 - 규정과 절차

우리가 만나는 많은 신자들이 교회생활의 많은 분야에서 통용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신자들은 신앙생활이란 그런 규정이나 절차를 잘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여 규정과 절차에 매달려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마라’ 라는 규정을 위반하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뜻밖에도 많습니다.

어떤 고해자가 주일 미사에 여러 번 빠졌다고 고해하기에, 그 이유를 물으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반가운 손님이 와서 음식점에 가서 불고기를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날이 금요일이기에 고해성사를 보러왔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예도 있습니다. 로사리오 성월에 묵주기도를 꺾한 일, 위령성월에 연도를 꺾한 일, 9일기도를 하다가 하루 빠진 일, 심지어 레지오 협조단원이 까떼나(성모님의 노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레지오의 중심적인 기도, 레지오 단원을 일상생활에서 연결시키며 더 나아가 성모님께 이어지게 하는 기도)를 하지 못했다고 고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율법주의를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르고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미사나 금육재를 지키지 못했다면,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다른 날에 미사 참례를 하든지 금육재를 지키는 것이 타당합니다.(물론 의무는 아닙니다) 요행으로 몰라서 꺾었으니 죄를 모면했다고 좋아하고 넘어가는 신자라면 미성숙한 신자입니다.

현대의 복잡한 상황이 사람들의 죄의식을 감퇴시키고 있지만, 일부 신자들은 반대로 지나친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규정을 어기면 다 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죄가 성립되려면, 계명 · 인식 · 자유의 3요소가 동시에 함께 작용해야 죄가 됩니다. 어떤 사물에 대하여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하느님의 계명이 있어야 하고, 이 계명을 알면서도 자신의 자유 의지로 거슬러야 죄가 됩니다. 위의 3요소 중에서 어느 한 요소라도 빠지면, 자신의 결점이기는 하지만 죄는 아닙니다.

모든 법은 공동선과 질서를 위한 것입니다. 특히 교회법의 정신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계명이나 교회법을 성실히 지켜야 하지만, 성숙한 신앙인은 교회법의 정신을 터득하여 신앙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리109

성숙한 신앙(6)

올법주의의 잔재 - 미사예물

미사는 언제나 어디서나 교회의 공식 예배이기 때문에, 어떤 신자가 어떤 미사에 특정 지향으로 미사예물을 바쳤을지라도 그 미사를 사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 미사의 은혜를 독점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미사를 주례하는 사제가 특정 지향으로 미사를 청한 사람의 지향대로 미사를 드려도, 그 미사에 참례하는 다른 신자들은 각기 다른 지향을 가지고 참례해도 무방합니다.

미사예물이 무엇인지 교회법 946조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지향대로 미사를 바쳐 주도록 예물을 제공하는 신자들은 교회의 선의에 기여하는 한편 이 예물을 제공함으로써 교회의 교역자들과 사업을 지원하는 교회의 배려에 참여한다.”

풀어서 말하자면, 미사예물은 세금도 아니고 요금도 아니고 대금도 아니

고 봉헌금입니다. 즉 신자가 미사를 청하는 기회에 성직자 생활이나 교회의 사업을 도우려고 바치는 헌금입니다. 돈을 내고 미사를 사는 것이 아니므로 대금이 아니고, 미사 이용료를 내는 것도 아니며, 교무금도 아니니 세금이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 초기에는 주교가 사제들과 함께 미사를 거행하였고, 신자들은 각자 형편에 따라서 미사의 재료가 되는 빵이나 포도주를 가져왔고, 그 일부분은 미사에 사용하고 남는 것은 성직자들의 생활에 충당하였습니다. 화폐경제가 발전하면서 이런 봉헌물이 돈으로 대체 되었을 뿐이다. 그렇지만 미사는 언제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공동체가 드리는 풍습은 4세기 이후에야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제공되고 수령된 예물마다 그 각각의 지향대로 미사를 따로 따로 바쳐 주어야 한다.” (교회법 948조)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우리본당과 같이 주일에 한 번 미사를 드리는 본당신부는 같은 날자에 여러 사람이 다른 지향으로 미사를 청했기 때문에 부득이 한 미사에 여러 지향을 두고 미사를 집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한 사람이 약속된 미사에 갔더니, ‘생미사와 연미사를 함께 봉헌하더라’ 하면서 불평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치 자기 몫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미사를 십자가상의 제사를 유혈(流血)이 없는 형식으로 기념하고 재현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한 가지 미사 밖에 없습니다. 또 모든 미사는 교회의 공식 예배입니다. 그래서 모든 미사에서 산 이와 죽은 이를 기념하고, 천상과 지상과 연옥의 신자들이 함께 드리는 흠송행위입니다.

한국에서 흔히 생미사, 연미사라 하는 구별은 특별히 미사를 청한 사람의 지향(志向)을 나타내는 말이지 미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즉, 모든 미사는 소위 생미사인 동시에 연미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미사는 모두 동일한 미사요, 지향이 많다고 은혜가 분할되어 적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리110

성숙한 신앙(7)

신덕(神德)에 관한 의무(1) - 신앙교육

‘신덕에 관한 의무’ 라는 제목은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생활하는데 요구되는 모든 의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신앙행위 자체에 직결되는 몇 가지 의무라는 한정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신앙자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조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덕에 관한 신앙인의 기본적 의무는 자기 신앙을 더욱 깊고 견고하게 하는 노력입니다. 인간에게 신앙을 요구하는 하느님의 계시 내용은 인간 지성(知性)에게 자명한 진리가 아니고 신비에 싸여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 지성으로서도 완전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한 신자라도 생활하는 도중에 수시로 신앙에 대한 의심이나 유혹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인간 정신의 불완전성에서 오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신앙에 대한 의심이나 유혹을 극복하고 견고한 신앙을 유지 발전시키려면 영세 때의 초보적 신앙상태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신앙내용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비신자 교리반을 마치고 영세하면 교리에 대하여 졸업했다고 착각하지만, 소위 ‘예비신자 교리’ 는 교리 공부의 초보적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초보적 신앙을 발생시키는 최저한도의 인식이고 그것만 가지고 일생 동안 건전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위 ‘신자 재교육’ 을 위한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하면서 여기에 많은 기성신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미사 전 5분 교리 시간을 지켰으면 합니다)

또한 예전에는 한국 교회에 지성인들이 읽을 만한 책이 없다고 하였지만 지금은 좋은 영적 서적들이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신자 증가율보다 교회서적 보급률이 월등히 높아졌다는 소리는 별로 듣지 못하였습니다. 새로운 신자나 오래된 신자나 신앙에 관한 첫째 의무는 자신의 신앙을 더 깊게, 더 높게, 더 넓게 함양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또 한 가지 표지입니다.

㉑ 영성서적 소개

○나를 위한 시간 / 노트커 볼프 / 바오로딸

현대인에게 시간의 의미와 활용법, 시간을 마음껏 다스리는 법과 그리스도교 정신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일깨우는 묵상서로 모두 24편의 글을 소개한다.

○사는 맛 사는 멋 / 황창연 / 바오로딸

이 책은 ‘진정한 행복은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물음으로, 금전, 일류 대학, 명품 같은 외적 요소만 바라며 행복을 좇는 이들에게 행복의 길을 생각하게 한다.

○온유한 사랑으로 / 발렌타인 L. 수자 / 바오로딸

따스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시기에 마음의 여유를 찾고 일상에서 하느님을 만나도록 안내하는 「온유한 사랑으로」는 「님은 바람 속에서」의 저자인 발렌타인 L. 수자 신부님의 묵상 모음집이다.

○내 삶을 가꾸는 50가지 방법 / 안셀름 그윈 / 바오로딸

이 책은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의식(儀式, ritual)의 본질을 일깨워 하루하루가 하느님을 지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며, 주어진 순간에 그 신비를 느끼고 하느님과 하나 되어 더욱 뜻 깊은 한 해를 가꾸도록 이끈다.

○성서와 인간 시리즈12 -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 / 송봉모 / 바오로딸 / 삶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순간순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의 소리를 듣고 더욱 기쁘고 보람차고 활기차게 살아가도록 돕는다. 참 제자가 되기 위한 희생과 투신을 주제로 다루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일깨운다.

○헨리 나웬의 마지막 일기 / 헨리 나웬 / 바오로딸

이 책은 9년 동안 몸담고 있는 `새벽`라르슈 공동체를 떠나 안식년(1995년 9월 ~1996년 8월)을 보내면서 가족과 친구들을 방문하며 쓴 일기다. 각 장마다(12장) 헨리 나웬의 사진을 연대기적으로 넣었으며, '죽음과 새로운 탄생'에 대한 헨리 나웬 신부의 사상이 잘 요약되어 있다.

○희망의 기도 /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우엔 반 투안 / 바오로딸

베트남의 우엔 반 투안 추기경이 13년간 옥중에서 살며 쓴 짧은 묵상글과 기도시 모음. 각 기도시가 짧고 구체적이어서 읽기가 쉬우며, 또한 깊이와 감동이 있으며 뜻을 되새길 수 있어서 개인은 물론 레지오 모임 등에 도움이 된다.

○지금은 다시 사랑할 때 / 송봉모 / 바오로딸

송봉모 신부의 책 중에서 마음에 머무는 따뜻한 이야기들과 박현정씨의 그림이 함께 어우러져 일상에 바쁜 이들에게 사랑의 메아리가 되어 힘과 위로의 시간이 될 것이다.

○가르멜의 산길 / 자가의 성요한 / 바오로딸

철저한 자기 포기과 자기 부정이라는 어두운 밤을 거쳐 하느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는 길을 제시하는 십자가의 성 요한의 대표적 저서로 가톨릭 영성의 빛나는 고전 가운데 하나이다.

비안네 신부

토끼와 거북이의 숨겨진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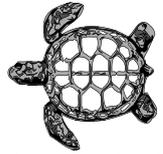
옛날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더라고요. 거북이는 모르고 있었지만 토끼는 거북이를 사랑했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토끼의 소중한 마음이었죠. 어느날 토끼는 거북이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거북이는 느린 자신에 대해 자책하고 있었거든요. 너무나 느리고 굼뜬 자신에 대해서요. 토끼는 거북이를 사랑했습니다. 거북이에게 자신감을 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어이~ 느림보 거북아! 나랑 경주해보지 않을래? 너 따위는 내 상대가 절대 될 수 없지만 말야~ 어때?"

"토끼야, 내가 비록 느리지만... 경주를 하겠어. 빠른 것만이 최고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어!"

토끼는 기뻐했습니다. 바보같이...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저 높은 언덕 꼭대기까지의 경주였습니다. 물론 거북이는 토끼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토끼는 어느새 저만치 앞서가고 있었죠.

'거북이가 쫓아올까? 포기하지 않고 쫓아올까?'

앞서가는 토끼는 달리면서도 거북이만을 생각했습니다. 어느새 너무나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토끼는 거북이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었죠. 토끼는 길가에 누워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북이가 다가와 자신을 깨워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함께 달리기를 원했습니다. 둘이서. 그러나...여러분도 그 다음은 아시죠?

거북이는 길가에 잠든 토끼를 추월해서 경주에 이겼답니다. 그렇지만 모르시겠죠. 잠든 척 누워있던 토끼의 눈물을.

경주가 끝나고, 거북이는 근면과 성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반면, 토끼는 자만과 방심의 낙인이 찍혀버렸죠. 그렇지만 토끼는 그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거북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으니까요. 옛날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더라고요. 거북이는 모르고 있었지만 토끼는 거북이를 사랑했답니다.

그리고, 그건 토끼 혼자만의 아픔이었답니다.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

<부모가 자녀의 이마에 십자표를 그어 주고 나서 다음과 같이 축복의 기도를 바친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선의 주인이신 성부여,
 자녀들을 주심으로써
 우리 부모들의 사랑을 더욱 기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나이다.
 비오니, 우리 가정의 이 새 식구들로 하여금
 더 나은 것을 향하여 전진하며
 마침내 주의 도우심으로
 정해 주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들의 앞길을 밝혀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275

나 무엇과도 주님을

Wes. Sutton

D A/C# G/B D/A



나 무엇과 - 도 주님을바 - 꾸 지 - 았 으 리 -

G A D Asus⁴ A D A/C#



다 른 어떤 - 은혜 - 구 하지 않 - 으 리 - 오직 주님만 - 이 내 삶에 -

G/B D/A G A D C/D D⁷



도 움이 - 시 니 - 주 의 - 얼굴보기 - 원합니 다 - 주 님

G A Bm Bm/A G A Bm Bm/A



사 랑 해요 - 온 맘 과 정 성 다 해 - 하 느

G A Bm A G D/F# Em⁷ A⁷ D



님 - - 의 신 실 - 한 - 친구 되기 - 원합니 다 -

❖ 8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리 디 아 (St. Lydia)	손 수 민			
4일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 부 님	18일	헬 레 나 (St. Helen)	현(김)영애 이 미 용 백(이)영자 윤 혜 진
8일	도미니꼬 (St. Dominic)	김 대 현 김 치 수 배 성 우	23일	로 사 (St. Rose)	최 종 금 이 선 주 이 증 지
	도미니카 (St. Dominica)	심(김)선옥		필 립	해준 Heifler
10일	라우렌시오 (St. Lawrence)	우 동 천 엄 현 석	24일	바르톨로메오 (St. Bartholomew)	남궁춘배
11일	수 산 나	노 정 자 서 수 진	27일	모 니 카	손 수 희 윤 예 진
15일	마 리 아 (St. Maria)	정 마리아 김 춘 옥	28일	아우구스티노	이 석 우 이 철 우 김 민 수

❖ 8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마 리 아	김일자(B) 황치숙(B)	18일	글 라 라	전영웅(H)
10일	테 레 사	고희지(B)		헬 레 나 (St. Helen)	박선자(H) 설운자(O)
11일	수 산 나	강민정(B)	23일	로 사 (St. Rose)	정지연(H) 최 랑(O)
	알 레 나	배 알레나(B)	27일	모 니 카	임소영(O)
15일	마리스텔라	정은찬(H)	28일	아우구스티누스	서선영(B) 고찬연(B)
	스 텔 라	부지우(O)			
	메 리	Albrecht(O)			

❖ 8월 성가번호

8월	입 당	봉 헌	마 칩
2일	428	214	29
9일	25	340	478
15일(대축일)	251	241	259
16일	78	221	20
23일	19	211	458
30일	49	220	446

❖ 8월 미사 전례 봉사자 ❖

8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카페 봉사
2일	최화영(시몬) 최종금(로사)	김치수(도밍고) 김영희(클라우디아)	김진호(프란치스코) 최장용(레오)	3구역
9일	백정선(토마스) 이영자(헬레나)	김형웅(야고보) 김정자(젼마)	이정수(토마스)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4구역
15일	한말조(마리안나) 강순행(말가리다)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곽케빈(요셉)	
16일	이선주(로사) 박주영(비비안나)	배성우(도밍고) 심은희(안나)	주일학교 복사단	청년부
23일	김매자(베로니카) 김애란(세실리아)	김동수(시몬) 강신자(벨라데타)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곽케빈(요셉)	요셉 마리아
30일	이경규(안스카) 유곡지(아그네스)	이수웅(필립보) 김순임(안나)	김진호(프란치스코) 최장용(레오)	1구역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6월 28일	7월 5일	7월 12일	7월 19일	7월 26일
계(€)	209.83	258.18	246.76	217.64	291.16

❖ 자진헌납금 ❖

2015년 6월 22일 - 7월 26일 자진헌납금 납부자 명단 :

김부남, 심동근, 이종화, 이현묵, 이정수, 이영희, 이공종, 이정은, 이수웅, 이기열,
이경규, 최장용, 현영애, 김용일, 육종인, 진윤희, 한성지, 김민수, 민경화, 강신행,
김형웅, 김기연, 손대조, 서세원, 박재형, 박경원, 박귀동, 박성아, 배성우, 권지연,
우동천

구좌입금 :

허두욱, 서유미, 김치수, 최현봉, 곽케빈, 허길조, 이성원, 김대현, 김진호, 남궁춘배,
김동수, 백정선, 이영원, 강일남, 최화영, 이원화, 최성자, 방조영자, 허채열, 오옥수,
홍경영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회장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8월 달에는 구역 소공동체를 씁니다.
2. 전체 공동체 청년 교육, 친교 MT에 영적, 물적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 8월 4일은 본당 신부님 축일입니다. 기도 가운데 기억하여 주시길 청합니다.
4. 8월 15일(토요일)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는 **만남성당에서 10:00에** 봉헌되어집니다.
5. 8월 29일(토)은 제42회 배구대회의 날입니다. 이에 준비과정과 당일 참여 시간 및 봉사협조는 배구대회 준비 위원회에서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6. 예비자 김보경 자매님, 김경미 자매님, 김 건 형제님, 노하빈 자매님, 이희자 자매님께서 하느님의 아름다운 도구 되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길 청합니다.
7. 첫 영성체 준비를 김 산, 박동윤 스테파노, 김현서 요한 크리소스토모. 우리 아들, 딸 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이선주(로사) 선생님께도 감사합니다. 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길 청합니다.



❖ Bremen 공동체 소식

1. 소공동체 모임 : 브레멘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 / 2431
2. 7월 4일 브레멘 공동체 정기 미사 날, 신부님의 교구모임 참석으로 미사는 없었지만, 우리 가족들 모두 친교실에서 만나 기도 모임을 갖은 후 테레사 자매님께서 대접해 주신 맛있는 저녁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테레사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하노버 공동체에서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00시에 소공동체 기도 모임을 안토니오 성당에서 갖습니다.
2. 7월 미사는 야외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기쁜 친교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7월 미사에 조 우현 요한 부제님께서 공동체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두 교우가정(이재홍 요셉, 부종배 스테파노)이 새 집을 마련하여 이사하였습니다. 새 보금자리에 늘 주님의 평화와 행복이 넘치기를 빌어드립니다.
3. 최나영 마리아 자매님이 1년 교환학생 연수를 마치고 귀국합니다. 공동체와 함께 기쁜 신앙생활을 하였던 자매님의 앞날에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4. 7월 소공동체 기도모임은 7월 24일(금) 17:00시에 돔 성당-기도경당에서 말씀 나눔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지향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

사 목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 장	한 말 조 마리안나	040/ 5069 7342 0157 7021 0466	
구 역 장 모 임	매월 넷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구 역 장 분과장	회장단		
주 일 학 교	매주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 사	이 선 주 로 사	0176 7636 2699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00분	만남성당	회 장	김 진 호 프란치스코	040/ 3742 0006 0152 0448 7382	
예 비 자 교 리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복음화	허 길 조 안드레아	040/ 8420 0637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u.	매월 첫째 목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강 순 행 말가리다	040/ 297 543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4109 1742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김 영 희 클라우디아	040/ 532 4138 0177 724 6335
	사랑의 모후 Pr. (청년반)	매주 화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박 성 아 베로니카	0176 8011 2329
구 역	1구역	구역장	최 화 영 시 문	8903264		
		총 무	김 정 속 마르타	8322587		
	2구역	구역장	허 채 열 크리스티안	5709734		
		총 무	김 수 희 모니카	04106-72958		
	3구역	구역장	김 형 웅 야고보	0157 84305419		
		총 무	김 정 자 켄 마	6310912		
	4구역	구역장	정 명 옥 살로메	6448623		
		총 무	이 순 자 마리아	41091742		

❖ 2015년 8월 ❖

8 월 중 행 사 예 정 표

(구역 소공동체 모임 없음)

일	요일	전례일	기관·단체 행사	비고
1	토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주교 학자 기념일		브레멘 공동체
2	일	연중 제18주일	사목협의회	주임 신부님 축일
3	월			
4	화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5	수			
6	목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꾸리아	
7	금			
8	토	성 도미니코 사제 기념일 입주		지방 미사 없음
9	일	연중 제19주일	청년 소공동체	
10	월	성 라우렌시오 부제 순교자		
11	화	성녀 클라라 동정 기념일		
12	수	말복		
13	목		요셉 마리아 소공동체	
14	금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사제 순교자 기념일		
15	토	성모 승천 대축일 광복절	의무 대축일 미사	만남성당 10:00 미사
16	일	연중 제20주일		
17	월			
18	화			
19	수			
20	목	성 베르나르도 아빠스 학자		
21	금	성 비오 10세 교황 기념일		
22	토	동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		하노버 공동체
23	일	연중 제21주일 처서		
24	월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		
25	화			
26	수			
27	목	성녀 모니카 기념일	연령회	
28	금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 학자		
29	토	성 요한 세례자의 수난 기념일		42회 배구대회
30	일	연중 제22주일		
31	월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전, 미사 10분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시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금요일 각 소공동체 17시 30분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0 7449972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최한우(바오로), Tel : 0541 37027

H.P : 0157 5436 0230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30분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회 장 : 이범이(바오로), Tel : 0511 748945,

H.P : 0157 5447792